

순천만국가정원, 1만5000개 캔들로 빛났다



시, 캔들라이트 콘서트 개최...1만2000여명 관람
자연경관·음악 조화...“최고의 정원 콘텐츠 구축”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 일원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이 1만5000개의 캔들과 음악, 봄꽃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며 '정원에 문화를 입히는 도시 순천'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 일원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1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정원의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행사장은 알리움, 작약, 제라늄, 크리산세뎀 등 화려한 봄꽃과 1만5000개의 캔들이 어우러지며 거대한 야외 정원극장으로 변했다.

여기에 현악 4중주의 섬세한 선율과 가수 최유리, 이석훈의 감성적인 공연이 더해지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잔디 위에 돛자리를 펴고 정원의 밤을 즐겼고, 푸른 잔디와 잔잔한 호수, 황금빛 노을과 서정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풍경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현장과 SNS에는 "국가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인 줄 몰랐다", "여유·나무·바람·젊음·음악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시는 사전 펜스 설치와 안전공간 확보, 돛자리존·의자존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질서를 유지했으며, 자원봉사자·모범운전자·경찰·소방·의료팀·환경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도왔다.

관람객이 쓰레기를 직접 되가져가는 모습까지 이어지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특히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이 밤늦게까지 정원과 도심에 머물며 음식점·카페·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은 단순히 꽃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고, 문화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도시의 플랫폼이다"며 "순천만국가정원은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 시민의 품격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고용위기 대응... 석유화학기업 취업·채용 돕는다

29일까지 온라인 접수...기업 고령노동비·채용장려금 등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남도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는 고령노동비용과 채용 관련 지원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석유화학산업 고용 위기

대응 기업 지원, 석유화학 일자리 제도와 패키지 등이 있다.

석유화학산업 고용 위기 대응 기업지원 사업은 지역 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고령노동비용을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별 근로자의 50% 이내이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이다. 모집

대상(100개 기업) 초과 시 공고문의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석유화학 일자리 제도와 패키지 사업은 관련 업종 경력 등을 보유한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가 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025년 8월 28일) 이후 지역 내 기업에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며, 모집 규모(220명) 초과 시 공고문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관련 업종 경력자의 재취업 여건을 조성해 여수국가산단 전반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남여수산업융합원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 화재 예방 점검 안전사고 차단

22일까지 취약시설 290곳 전수조사

고흥군은 오는 22일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축사, 냉동·냉장 창고, 노유자 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총 2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전기·가스 안전관리 실태, 대피로 확보 등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경보 장치 관리 미흡, 전기 설비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안전관리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향후 계절별 재난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화재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25~29일 접수...인구의 날 기념

광양시는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2026년 '광양 한 컷, 행복 한 컷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이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족사진 형식의 작품과 제출서류를 담당자 전자우편(hbee030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70만원, 장려상 2명 각 45만원 등 총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7월 중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광양시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15일 광양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광양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구교육, 시정 홍보 자료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061-797-1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양에서의 삶과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작품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장흥군은 지역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산물가공창업 기초·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장흥, 가공기술 고도화·소득 창출 기반 구축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상품화·창업 연계 강화

장흥군은 지역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교육생 25명 중 24명이 96% 수료율을 기록했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식품가공 기술, 상품화 전략, 위생관리, 소규모 HACCP 적용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상품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레드향 잼·칩, 토마토 주스, 도라지·배 엑사차, 건어주 분말과립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제작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공유주방 운영 체계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

고 가공·유통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코칭반을 운영해 제품 기획부터 품목제초보고, 표시사항 작성, 유통 및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공은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공 기술 교육부터 상품화, 창업, 판로까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곡성서 장미꽃 감상하며 향기 느껴요"

군, 17~18일 꽃꽂이 프로그램 진행

곡성군은 오는 17~18일 '나무결에 피어난 장미 꽃꽂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기념해 마련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장미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장미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꽃꽂이를 하며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섬진강기차마을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나무 소재의 화기에 장미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장미 꽃꽂이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이며, 하루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체험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이며,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다. 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섬진강기차마을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한 후 입장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GAr60VTV)을 통한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미를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며 "나무결의 따뜻한 감성과 장미의 화사함이 어우러진 꽃꽂이 체험을 통해 곡성의 봄과 장미공원의 매력을 오롯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